



에덴뉴스

2018년
통합 12-71호

1月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행복 칼럼2017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파이팅릴레이
에덴 직원이
에덴 환우에게

07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FOCUS 사진으로 보는 2017 에덴의 이모저모



LED스크린 설치



환자안전 포스터 공모전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행정원장 디지털시계 기증



에덴 일광욕장 개장



모의 소방 훈련



정창근 행정원장 은퇴식



개원 16주년 기념식



의료기관 평가 인증 실시



부서장 워크숍



에덴정원 정자 설치



사랑의 장학금 전달



25인승 셔틀버스 구입



NEWS 에덴의 소식

2017 송년음악회

12월 6일 송년음악회 행사를 가졌다. 에덴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김기심 환우 보호자인 최호현 교수의 주선으로 송년음악회에 소프라노 이승은, 가수 D.I.P, 인스타, D.O직구 등이 출연했다.



이승현 박사 강연

12월 19일 미국 텍사스 주립의과대학 이승현 박사를 초청하여 건강강의를 진행했다. 이승현 박사는 “전인적 관계회복과 행복한 삶”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삶의 수많은 종류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직원 송년회

12월 28일 병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갖고 즐거움을 나눴다. 남태희 프로그램계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비교적 많은 직원이 참석하여 한 해의 어려웠던 시간은 잊고 다시 시작하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넘치기를 바라며 흥겨운 게임과 윗놀이로 행복한 송년회를 마무리했다.



종무식 및 시무식

12월 29일 한 해 동안 에덴요양병원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무식을 가졌다. 김남혁 병원장은 수고한 각 부서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새해에 더 나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힘차게 설계했다. 시무식을 마친 직원들은 서로 따뜻한 악수와 포옹으로 복을 빌었다.



직원동정

♠ 환영합니다 ♠

황정순(영양과) 12월 1일 부
김순희(영양과) 1월 16일 부
양인숙(간호부) 1월 15일 부

♥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광(영양과) 12월 31일 부



행복칼럼[8] 원목실장 류태희

“내 평생에 가는 길”

1.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불행과 시련, 고통으로 인한 절망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은 승리의 찬송이다.



이 찬미의 작사자 호레스시오 게이츠 스페포드(Horatio Gates Spafford, 1828~1888)는 시카고의 성실하고 명망 높은 변호사이자 대학교의 법학교수였다. 그는 무디 교회의 회계집사로서 담임목사인 무디 목사의 든든한 전도사업의 후원자였으며 생키, 펜테코스트, 블리스 등 당대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과 깊은 우정을 맺고 그들의 복음 선교사업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아내와 1남 4녀의 자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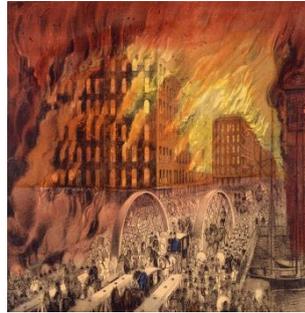
가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러던 중에 이처럼 신실한 스페포드의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쳐 왔다.

첫 번째 시련, 1871년 스페포드의 4살 난 아들이 성홍열이라는 질병을 앓다가 죽게 되어 귀한 외아들을 잃게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잃은 마음에 쓰라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스페포드 가정에 또 다른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두 번째 시련, 아들을 잃은 몇 달 후 미국의 19세기 최악의 피해를 끼친 재해 중 하나인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1871년 10월 8일 일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계속된 이 화재로 인해 스페포드는 그의 살고 있던 집과 섬기는 교회를 비롯하여 온 재산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스페포드는 겹쳐진 이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1873년 영국에서 열리는 부흥집회에 참석하고자 온 가족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다.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관계로 스페포드는 일을 처리하고 뒤따라가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먼저 태웠다.

세 번째 시련, 아들을 잃고 화재로 전 재산을 잃은 고통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스페포드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이 타고 가던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철갑선과 충돌하여 12분 만에 침몰했다는 전보를 받은 것이다. 다행히 아내는 구명정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네 딸은 모두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황급히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가는 중 스페포드는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스페포드가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의 눈물 어린 기도 끝에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이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가련한 영혼 스페포드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마음에 깊은 평안을 되찾았다. 그리고 스페포드는 그 평안을 다음과 같은 글로 남기게 된다.

“내 평생 가는 길이 강 같이 평화롭든지 큰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있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탄생된 글을 기초로 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작곡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 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3. 내 지은 죄 주홍 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4.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이제 지나가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화재, 지진, 각종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아픔, 쓰라린 상처와 고통의 흔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시계는 오늘도 침묵 속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우리에게도 스페포드와 같은 큰 고통을 직면할 수 있고, 그 까닭 없는 고통의 장본인은 사단 마귀인 것을 알 수 있다. 나 자신도 2011년 20세 된 딸을 교통사고로 잃는 아픔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류지선 기념 삼육중고등학교’를 건축하게 하였고, 더 큰 축복으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시련보다도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으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매일 승리의 발걸음을 걸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FIGHTING 파이팅 릴레이

간호조무사 김진아

한 번 에덴인은 영원한 에덴인

수동을 찾아 오던 그 해 12월도 올 겨울만큼이나 많이 추웠다. 축령산 칼바람에 여민 옷 깃을 두 손으로 틀어쥐고 하얗게 쌓인 눈을 밟으며 에덴에 첫발을 디딘 것이 어제일 같은데 어느새 다섯 해가 흘러 갔다.

병원 업무의 초년생을 한 식구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료들의 마음 씩씩이와 이것저것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친절함이 왕초보인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호기심과 장난기를 담고 신입직원을 바라보는 환우들의 눈망울에서 치유의 소망을 찾아 내곤 했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떠나 보냈다. 에덴에 온 후 처음 맞이한 새해 첫날 저녁 일이 떠오른다. 마식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진 후 역전에서 밤 9시 에덴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오후부터 퍼붓기 시작한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사정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옆에는 외출을 마치고 귀원하는 여자환우도 한 분 계셨다. 도착시간이 한참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았고, 눈은 이미 세상의 모든 길을 꽁꽁 묶어놓고 있었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셔틀 기사사의 야속한 대답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 왔다. "눈 땀에 길이 막혀 못 나갑니다" 세상은 길이 막혔고 나는 기가 막혔다. 한 중년의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보아하니 사정이 급해 보이는데 눈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지만 비금리 종점까지 모셔다 드리죠" 비금리에 내리는 눈은 이미 무릎을 넘고 있었다. 미끄러지기를 수 차례... 설움을 못 이겨 굵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환우를 달래가며 부축하여 눈 덮인 에덴의 산마루를 넘어오던 그날 밤, 나도 환우의 등뒤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그 환우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재작년이었던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를 주고 받던 여자 환우가 있었다. 그러던 중 병이 깊어지자 고향집이 있는 충주로 내려간다고 했다. 철쭉꽃이 피던 5월이었다. 짐을 꾸려 떠나던 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나의 두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선생님! 그 동안 고맙습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집에 가면 몸 건강하게 만들어서 올게요. 병원 뒷산에 단풍 들기 시작할 때쯤 꼭 돌아올게요" 그렇게 떠난 그녀는 함박 눈 펄펄 내리는 겨울이 와도 돌아오지 않았다.

혈압, 체온 재는 것이 서툴다고 걸걸한 목소리로 놀려 대던 남자 환우도 떠오른다. 내 얼굴이 먹성 좋게 생겼다고며 마주칠 때마다 과일이라 주스라 그렇게 챙겨 주었는데... 정을 담아 주었는데... 다들 고마운 분들이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고, 그래서 더 분주한 일상이었지만 나의 오십여 년 인생길에서 이처럼 많은 환우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몸과 맘의 편안함을 주기 위하여 정성을 다 한 적이 있었던가? 더욱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동료, 그리고 환우들과 더불어 찬미로써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살아갈 이유와 살아 있어 행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몇몇 가지 담은 손가방 하나 달랑 들고 병원 마당을 들어선 지 어언 다섯 해! 에덴에서 환갑, 진갑 다 하겠다던 결심을 뒤로 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슴에 끌어 안은 채 이제 또 다른 나의 길을 가려고 한다. 신탄진에 내려 와서 같이 살자는 아들이 의 성화를 당할 길이 없다. 손주 녀석 얼굴이 겹쳐서 떠오르면 그냥 백기를 드는 수밖에 없다.

병원 뒷산 오솔길을 걸으며 이곳에서 펼쳐질 노년의 예쁜 삶을 꿈꾸던 진아 아줌마는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름인 진아 할머니로 변신하려 한다. 큰 사랑 베풀어 주신 병원의 어른들과 동료, 그리고 환우들에게 감사드리며,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응원한다.

※ 화이팅 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김진아 간호조무사님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최경숙 간호사님'입니다.



FOOD 계절을 대표하는 건강 식품

양송이 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등과 함께 대표적인 식용 버섯이다. 단순히 생김새가 송이버섯과 비슷해서 '양송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분류상으로는 거리가 멀다. 독성이 강한 독우산광대버섯과도 비슷해 뉴스에서 자주 언급된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도 인기 있는 식재료지만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특히 더 인기가 많은 버섯이다. 사이드메뉴, 소스재료, 샐러드, 수프 등 모든 서양요리에 매우 많이 쓰인다. 이름이 '양송이'인 것도 '서양의 송이'라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

양송이의 효능

항암 효과 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주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량 들어 있어 암 예방에 효과적이고, 단백질 함량이 버섯 중 최고로 많아 암 환자에 유용하다.

피부미용 비타민B2가 풍부하여 자외선이 강하고 건조한 날씨에 거칠어진 피부를 탱탱하게 해 준다.

동맥경화 예방 양송이의 레더나신 성분이 피가 몸에서 굳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여 체내 혈액이 응고되는 현상을 막아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소화 기능 개선 각종 소화효소인 트립신, 아밀라제, 프로테아제가 풍부하여 소화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

빈혈 개선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 및 엽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엽산 결핍성 빈혈에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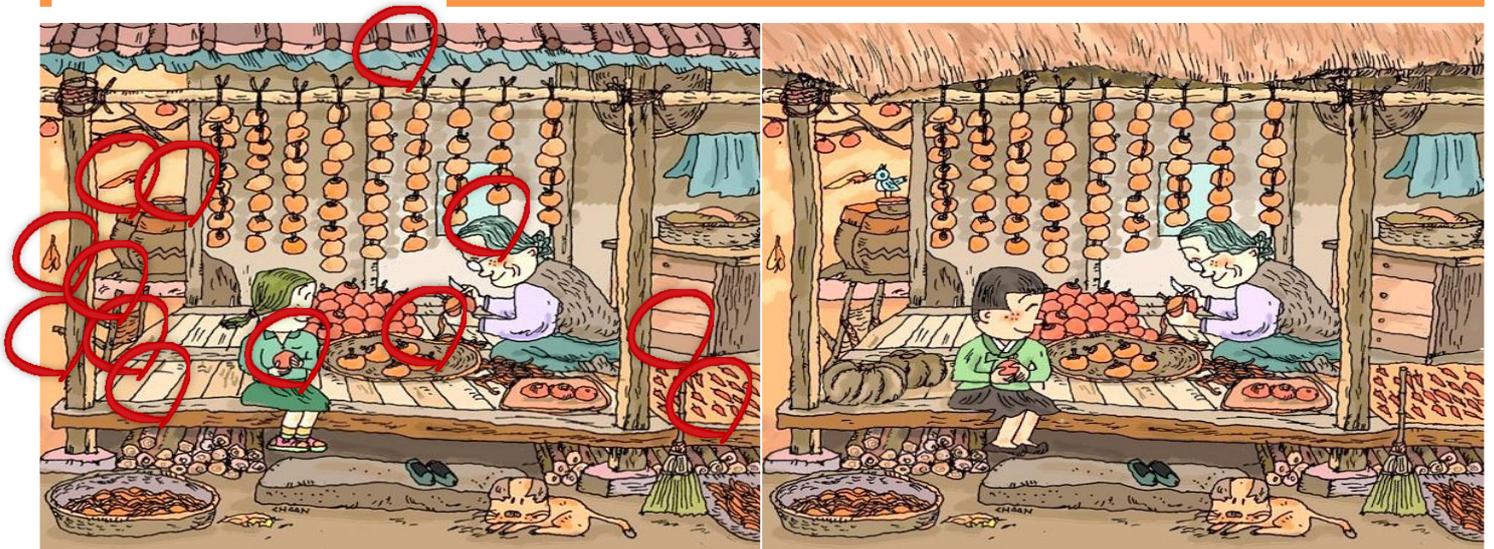
양송이로 만든
에덴의 항암채식요리

파프리카양송이볶음

레시피 보러가기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지난 호 틀린그림찾기 정답 (총 13개)



ON DAY 따뜻한 하루

가장 낮은 자세

어느 날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됩니다.



즉,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정말 쉬운 법칙인데, 사람들은 왜 그 법칙을 지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회사의 사장도, 정치인도, 종교인도, 한 집안의 가장도, 자식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도 직원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 정치인도 국민이 뽑아줘야만 배지를 달 수 있는 것, 가장도 가족이 있어야만 존재하고, 자식도 부모가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은 군림이 아닌 존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각자 역할의 본분에 충실하다면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낮은 역할, 높은 위치!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을 대하세요.

수기공모

에덴뉴스에서
환우분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채택된 글은 에덴뉴스에 기재되며,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상품권 및 기념품을 드립니다.
환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유형 +++++++

- 에덴에서 경험한 행복이야기
 - 가족, 환우를 향한 사랑의 편지
 - 감동을 주는 병실 에피소드
 - 그 외 자작시나 수필 등
- 문의 홍보기획실 (☎610)

‘조성은 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늘 한결같은 미소로 약해진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주사도 정말 아프지 않게
해 주셔서 추천합니다. 수고하시는 에덴 직
원 모두에게도 친절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 519호 김복순 -

‘관리과 직원’ 모두를 칭찬합니다.
12/6 저녁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 퇴근 시
간이 지났는데도 모두들 나오셔서 눈을 치
우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 간호과 박은진 -

칭찬합시다~

‘107호 김갑중’님을 칭찬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
원생활의 모범이며, 나이와 상관 없이 강의
듣고 전도에 힘쓰는 모습은 귀감이 됩니다.
오랜 중국과 미국 생활로 몸에 밴 서비스는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줍니다.

- 107호 김영역 -

‘107호 김창원’님을 칭찬합니다.
모범적인 병원생활론 타의 모본이 되고 고
훈을 주며, 차분히 책 읽는 습관은 다른 환
우 정서에 도움을 주고, 암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공유해 주는 행동은 칭찬 받을 자격
이 있다 생각하여 칭찬합니다.

- 107호 김영역 -

‘107호 이지표’님을 칭찬합니다.
성격이 좋아서 배려를 잘하고 옆 방 사람들
과도 잘 지내며, 양파도 다듬어 방원들에게
선물하고 부모님께 자주 문안 전화도 하는
효자입니다. 환우 간 분위기도 잘 띄워주거
에 칭찬합니다.

- 107호 김영역 -

‘박명덕 환우’님을 칭찬합니다.
본인 역시 육종암 환우로서 에덴 환우를 위
해 오직 미용봉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
로 오늘처럼(12/10) 대폭설이 내린 날에도
미끄러져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면
서 약속시간에 오셔서 미용봉사를 해 주서
서 감사드리며 107호(6명) 전부 박수갈채
와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 107호 김창원 -

‘전봉수’님을 칭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병실을 방문하여
“안치”하며 거수경례를 하는 순간 모든 암
세포가 녹아 내리는 느낌을 받아 하루가 너
무 행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도 전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여 마음이 평온하
며 희망이 샘솟는 것 같아 치유에 많은 도움
이 되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 210호 안미희 -



